

한우지조금

www.hanwooboard.or.kr

2011

10

기획특집

한우시장, 비수기를 뚫어라
한·미 FTA 축산분야 추가대책은?

현장르포

한·미 FTA 국회비준저지 농어민 결의대회

파워인터뷰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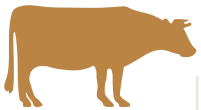
23년 역사를
무작히-에 함께하며
힘겹게 일러온
담백한 삶의 결실들





C·O·N·T·E·N·T·S

기획특집	02-05
한우시장, 비수기를 뚫어라 한·미 FTA 축산분야 추가대책은?	
현장르포	06
한·미 FTA 국회비준저지 농어민 결의대회	
파워인터뷰	08-09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Information	10-11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Information	12-13
한우 할인판매 · 홍보행사	
Special	14
한우 어플리케이션 소개	
애독자 코너 & 인증점 소개	15



현실적 보완대책 마련 농가 버팀목 돼주길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철새의 이동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다시는 지난 구제역과 같은 끔찍한 사태를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축산농가들도 철저한 구제역 백신 접종과 차단방역에 대한 노력을 아끼기 말기를 바란다.

더불어 미국과의 FTA가 목전에 닥쳐왔다.

정부는 FTA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3/4분기 한육우 사육두수는 304만3,881두로 전분기 대비 9,345두가 감소했다. 수소가 116만3천여두로 전분기 대비 11만2천여두 줄어든 반면 암소는 182만7천여두로 전분기보다 2천여두 증가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최근 밝힌 시·도별 한우 암소 자율도태 추진실적에 따르면 당초 대상 13만 4,195마리 가운데 1만 9,805마리가 도태되어 도태비율은 14.8%에 그쳤다. 또한 9월 송아지 평균가격은 처음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보다 낮은 159만6천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연중 한우소비 성향을 볼 때 10월과 11월은 비수기라 축산농가의 근심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우자조금과 농협중앙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우 암소 위주의 할인판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 사육·도축 마릿수 증가...내년 설 출하물량 증가 전망

한우 암소 위주 할인판매 추진, 사육두수 안정화 유도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로 소비자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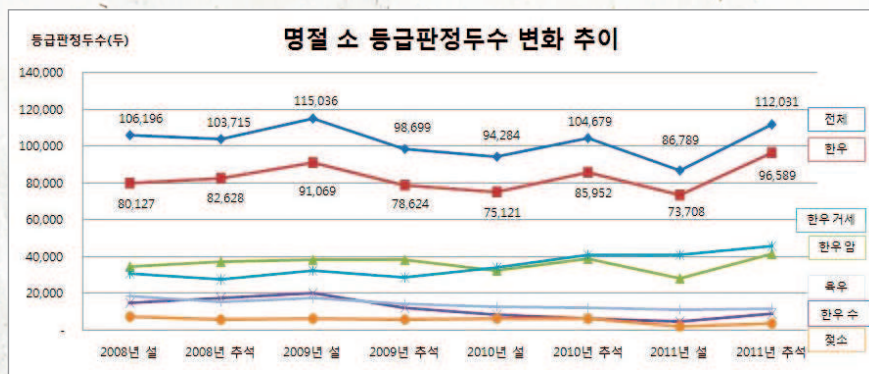
명절 성수기 출하마릿수 추이 및 예측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추석 이후 다음 연도 설의 출하두수 추이가 평균 9.0%(8,243마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이후 익년 설 소 출하두수(한·육우, 젖소)는 5~11%가 증가했으며 한우의 경우 8~13%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명절 성수기동안 소 출하두수 중 한우의 비중은 평균 72.8%였지만 2011년 추석에는 86.2%로 나타나 한우의 출하비중이 13.4%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내년 설 출하에 상 두수는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 지난 4~6월 한우자조금과 대형유통업체가 연계해 전국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올 연말까지 2.5%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설날 물량이 지난 추석 성수기 물량(11만2,031마리)의 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올 들어 9월까지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5%증가했다.



10~12월 한우 암소 위주 사은할인행사 진행

사육두수 조절과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우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 농협중앙회와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적인 암소위주의 사은할인행사를 진행하고자 협의중이다.

그 일환으로 한우 암소 소비자가격 대비 3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수도권 농협유통매장에서 시범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기간 동안 600마리의 한우 암소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우자조금은 할인 및 시식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11월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우고기 할인판

매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900개소, 축산물프라자 150개소, 농협유통 60개소, 안심축산물전문점 150개소 등 농협계통 축산물판매장 1,260개소에서 총 3만두의 한우를 판매하게 된다.

품목은 한우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 등 저지방부위 위주로 추진하되 한우고기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골이나 잡뼈, 갈비 등 체화품목을 추가 판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제4회 한우의 날(한우먹는 날) 마련, 소비확대 분위기 확산

특히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 행사를 통해 한우 소비확대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우의 날 행사에서는 팔도 직거래 차량을 이용한 대대적인 사은행사와 한우요리 경연대회, 다양한 체험마당 및 나눔 축산 행사가 진행되어 한우농가와 소비자간 한우를 매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시킬 예정이다.

지역별로도 농협 도단위 지역분부를 통해 도청 소재지나 지역별 축제 등과 연계해 시식회 및 할인행사 등을 실시한다.㉞



한우산업 안정화위한 실질대책 제시 촉구

FTA

국회 농식품위 19가지 요구사항 제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 2015년까지

지난 12일 미국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FTA 추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계도 정부측에 실질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과 한우업계의 주장을 살펴봤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알맹이 빠진 생색내기

2012년도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편성한 예산은 올해보다 15.3%가 증가한 1조 8,594억원 규모다.

지난 18일 농림수산물부가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한·미 FTA 대책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직접피해보전과 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했다. 이중 축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2,760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204억원이 배정됐다.

이 같은 정부의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FTA보전대책이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효석 의원(민주, 담양·곡성·구례)은 “FTA 피해산업 분야의 대해 정부가 확고한 피해보전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준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의원(한나라, 남해·하동)도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예산 명목으로 적은 금액의 예산안을 제시하며 한·미 FTA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는 낙후돼가는 농업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줘야하는 역할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는 지난 7일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해 19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축산관련부문의 경우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 및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간 영구화 요구에 대해선 농식품부가 부분적으로 수용해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간은 2015년까지로 연장하고 배합사료 부가세의 영세율은 201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는 먼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국내 생산품목과 경합이 없는 품목들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사료원료 1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 FTA대책의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이행기금 지원 확대나 축발기금의 확충, 시설현대화 지원규모 확대, 축산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등도 협의 중이다.

한우인들 실직적인 대책마련 ‘한목소리’

정부의 알맹이 없는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7일 ‘한우가격 폭락, 한우산업 다 죽어간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한·미 FTA대책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분야인 한우산업의 안정화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식 국회 비준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우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에 구걸하는 듯한 한·미 FTA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타산업의 의견을 묵살하는 듯한 비민주적이고 강제적 FTA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다”며 “한우산업 희생대책 없이는 국회비준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에는 농업단체와 연대한 낙선운동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FTA는 國益 아니라 ‘毒藥’ 잘못된 농업정책이 400만 농어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순차적 FTA 체결시

한우산업 생산감소액 최대 4,381억원



대책없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함성이 여의도 문화마당을 뒤덮었다.

한·미 FTA저지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저지 농어민 결의대회를 열고 대책없는 한·미 FTA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고 산적한 농업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이 400만 농어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 현안을 해결할 것과 무차별적 FTA추진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

할 것, 청문회를 통해 밀실험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퍼주기식 조공외교에 앞장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규탄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는 구제역 이후 모든 방역책임과 비용을 농가로 전가시켜 축산 농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축산 강국과의 연이은 FTA로 우리의 단백질 식량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원산지 단속인력 보강·재원 확보 등

한우산업 회생대책 마련 촉구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기밀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쌀 시장을 지켜냈다고 자부했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밀약을 통해 쌀과 쇠고기를 조공처럼 갖다 바쳤다”며 “지역구 의원에게 항의전화 한통, 의원사무실에 항의 방문 한번하는 것이 FTA를 저지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니 농가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며 FTA반대에 동참을 촉구했다.

미국·캐나다·호주와 FTA 수입 30% 증가 시 한우 매년 4,381억원 생산감소

한우농가들도 한·미FTA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한우산업은 한·미FTA로 인한 최대 피해 품목으로써 쇠고기 주요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순차적인 FTA 체결 시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매년 생산감소액이 최대 4,3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은 더욱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 암소도태 장려금 지급

중장기 생산비 절감 지원 대책 촉구

이에 한우협회는 위기의 한우산업을 구하고자 한우산업 회생대책을 정부 및 국회에 제시했다. 한우산업 회생대책으로 유통투명화를 위해 원산지 단속인력 보강 및 재원을 확보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제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소값 안정화를 위해 암소도태 장려금 지급 및 사료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자가TMR의 공급확대 등을 통해 사료 자가생산 체계를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수입축산물 관세의 축산발전기금 전액을 목적세화 시킬 것과 현실적인 구제역 근절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현재 백신 부작용 발생 시 100% 농가 부담이며 백신비도 전액 농가 부담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보완 및 변경해 농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일본과 같이 궁극적인 무백신 청정화 대책을 강조했다. 한편 면세율을 대형 스키드로더에도 적용시키며,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급판정수수료 및 HACCP인증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지원할 것과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도축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㉞



▲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대책없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써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400만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 강력히 저항할 것을 결의했다.



▲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밀실험상·조공외교를 규탄하고 대책없는 한·미FTA 추진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FTA 피해보전대책 반드시 관철하겠다

경쟁력 향상·생산비 절감...예산·정책으로 지원해야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민주, 나주·화순)

농가협력·적정사육두수 유지·생산비 절감
축산발전기금 조성·축산업 안정화 도모

대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

한·미 FTA비준을 앞두고 수입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농업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와 경지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 축산분뇨 처리 시설 및 RPC 등에 농업용 전기세 적용,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농가의 소득공제 확대, 축발기금 5조원 조성 등 13가지 피해보전대책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달했고,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지금 추진되는 한·미 FTA 및 정부가 제시한 농·축산업 피해보전대책을 평가한다면?

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선 대책 마련 후에 협상을 진행하고 비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TA체결로 연평균 8,150억원, 15년간 약 12조 2천억원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농업분야 피해 중 약 60%가 축산이 차지하고 있어 2010년 사상최대의 구제역 발생과 90% 이상 축산피해가 집중된 한·EU에 이르기까지 가히 국내 축산업의 위기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대책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25조원의 예산편성으로 허울뿐인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상시에 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대책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농·축산업에 대해 무관심과 무성의, 무대책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다면, 반

Q 한·미 FTA로부터 국내 농업 및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정부의 농정관이 바뀌어야 한다. 농업이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들어 개방과 경쟁에 떠밀려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지속적인 기상재해로 전세계는 농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며, 구제역과 AI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위기의식도 없이 한·EU, 한·미 FTA체결에 열을 올리고 나아가 한·호주 FTA까지 추진하면서 쇠고기 수입 개방을 전면 허용하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 노력, 축사시설 현대화와 사육

방법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도록 축산농가와 정부가 유기적인 협조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FTA와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내 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국회는 예산과 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국정감사 중 한우산업 분야의 국가정책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약 39만6천톤으로 이 중 절반가량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절반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우는 돼지고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서민들이 마음 편히 소비 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수입산 쇠고기 개방문제에 대해 서민에게 값싼 쇠고기를 공급하겠다는 논리를 들고 있지만, 이보다는 경쟁력 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을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생산한 한우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쇠고기 이력제, HACCP 등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도들이 마련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축사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을 담보하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FTA에 대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시설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상당치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해 개방화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한우산업 안정화방안을 위해 향후 어떤 사업이 필요하며 또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미FTA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크지 않아 1조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소득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료원료 무관세,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면제, 4톤 이하 스키터로더에 대한 면세유 적용 등 세제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한·미FTA 대책으로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축발기금을 조성해 축산업에 특별지원이 되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Q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농가들은 도태 장려금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백신비용, 방역시설 비용 등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 많은데 국회에서 검토하는 대안이 있는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구제역에 이어 소값하락까지 겹치고, 수입산 쇠고기 증가로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백신비용과 방역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축산선진화를 이유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 또한 농업과 마찬가지로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축산농가가 논의해 적절한 선에서 책임분담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역사와 함께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우인들 편에서 예산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㉞



국제축산박람회 대구 EXCO에서 개최 한우 할인 판매 및 무료 시식 진행



한국 축산업의 현재와 친환경 녹색희망의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제7회 국제축산박람회가 대구 EXCO에서 지난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종별 대표 생산자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13개국 243개 업체가 참여해 803개 부스 규모로 역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포토존 및 이벤트를 실시하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지역 한우 브랜드인 팔공상강한우, 참품한우와 함께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명품 한우 등심 및 불고기 무료 시식회를 진행하며 최대 40%까지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즐거운 가을 산행은 한우와 함께 하세요 ‘전국 일선기자 문화탐방’ 한우자조금 협찬



지난 8~9일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전국 일선기자 문화탐방 및 녹색환경 캠페인에 한우자조금이 협찬을 진행했다. 전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이번행사는 5백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가을 산행을 만끽한 가운데 등반대회 1위 및 우수회원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증정했다.

한우자조금, 지난 14~15일 한국사진기자협회 팸투어 개최



한우자조금은 한국사진기자협회 기자단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팸투어를 개최했다. 사진기자 팸투어는 한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높이고 한우 축제의 언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충북 보은에서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관람하고,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한 인삼·한우축제를 참가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언론에 한우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우 관련 축제를 취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언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우 홍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다방면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성한우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 실시



한우자조금은 지난 9월 27~28일(농협 수안보수련원), 10월 11~12일(화순 금호리조트), 10월 18~19일(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여성축산인을 대상으로 '여성한우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으로 여성한우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뤄진 이번 교육은 '한우산업동향 및 명품한우 활성화 방안', '초음파육질진단과 생산성 향상', '해외 최신사양관리 기술소개' 등 한우관련 강좌는 물론 여성건강 강좌 등 교양강좌도 실시했다.

한우협회, 축산과학원 공동...농가 교육 실시

자가사료배합 전산교육 및 한우 기본실용기술 실습 교육 진행

한우자조금이 후원하고 한우협회와 축산과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가사료배합 전산교육과 한우 귀농농가 기본실용기술 실습교육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 9월 27~28일(1기), 29~30일(2기) 충남대학교에서 진행한 한우 자가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 교육은 사료배합과 사료성분표 이용 전산프로그램, TMR 농가 급여사례, 초음파를 이용한 출하시기 예측 등의 과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전산 프로그램은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우 귀농농가 기본실용기술 실습 교육은 지난 4~5일(1기), 6~7일(2기) 충주축협에서 진행되어 인공수정과 초음파를 이용한 출하시기 예측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한우고기 유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대형 유통업체 비중 증가, 정육식당 부가세 등 문제

한우고기 유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9월 15일 '한우 소매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우 소매 유통의 문제점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로 인해 영세 정육점의 경영난 가중과 정육점형 식당의 부가세 부과로 인한 경영난 등이 제기됐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따른 비선호부위 적체, 한우둔갑 판매로 인한 낮은 신뢰도, 냉장육 선호 등이 지적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부분육 유통

의 활성화와 비선호부위에 대한 홍보 강화, 정육점 식당의 부과세 면제, 소셜 커머스를 통한 소비 촉진 등이 제시되었다.

이어 한우 내장을 이용한 요리 연구 최종 보고회도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232가지의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이중 55가지 개발 메뉴를 확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곱창과 대창, 막창이 구이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탈피해 볶음이나 찌개, 무침 등 다양한 요리를 개발했다. 특히, 허파나 염통의 경우 선호도가 낮지만 이번 요리를 통해 맛의 기호성을 높일 경우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 할인판매 홍보행사



- ① 9.23~25 충북 축산 페스티벌(청주)
- ② 9.23~10.3 봉계 한우불고기축제
- ③ 9.24~10.23 이천 도자기축제
- ④ 9.29~10.3 김제 지평선축제
- ⑤ 9.29~10.13 양양 송이축제
- ⑥ 9.30~10.3 봉화 송이축제
- ⑦ 10.1~2 대숲맑은담양한우축제
- ⑧ 10.1~3 천안 흥타령축제
- ⑨ 10.1~9 안성 세계민속대전
- ⑩ 10.6~7 안동 탈춤페스티벌



⑨
가장 맛있는 한우
안성마춤 한우
최고급
명품 한우의 맛을
느껴보세요
시식 및 판매
2011. 10. (토) ~9(일)
주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안성마춤한우)





- 11 10. 5~9 황성 한우축제
- 12 10. 6~9 영동 와인축제
- 13 10. 7~8 경기 G페스티벌(수원)
- 14 10. 7~9 풍기 인삼축제(영주)
- 15 10. 14~16 전북 한우소비축제(전주)
- 16 10. 14~16 강원 한우소비축제(홍천)
- 17 10. 14~16 파주 인삼축제
- 18 10. 14~16 생거진천문화축제
- 19 10. 15~16 영천 포도한우시식회





한우고기를 먹을때도 스마트하게~ 한우 관련 어플을 소개합니다~



안심장보기, 쇠고기 이력추적 어플
안드로이드폰은 '쇠고기이력제', 아이폰은 '안심장보기' 어플리케이션으로 한우고기에 표기된 개체식별번호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해당 쇠고기
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한우맛집

한우자조금에서 제공하는 한우 맛집 어플, 믿을 수 있는 한우전문점, 한우 요리정보, 쇠고기 이력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아이폰용과 안드로이드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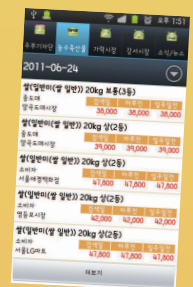


한우매니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한우 어플리케이션으로 부분육 형태로 유통되는 한우의 각 부위에 대한 요리법, 특성을 제공한다. 고기의 특징(육질등급, 영양성분, 좋은 고기 고르는 법 등), 부위구별(축종별 대분할 및 소분할), 각 부위별 요리법(구이나 스테이크용, 국이나 탕용, 찜용 등)과 맛있게 먹는 법을 제시한다. 아이폰용.

농수축산물 가격정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16개 지역 주부 명예기자가 소비자(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등)의 가격을 조사한다. 주요 농수축산물 소비자 가격정보 제공, 계절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정보를 제공한다. 안드로이드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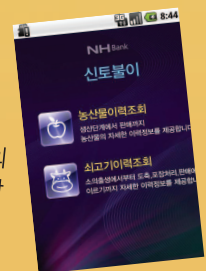


폰꾸미기 지글지글 고기파티

지글거리는 숯불위에 각종 고기와 반찬들이 아이 콘으로 놓여지는 코믹한 테마입니다. 군침도는 고기파티 테마로 휴대폰에 재미를 더해주세요!
안드로이드폰용.

신토불이

대한민국 안전밥상은 NH 신토불이 어플로~농협의 신토불이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안심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한 번의 카메라촬영(문자인식)으로 밥상 준비 끝~



생활백서 요리편

요리에 대한 팁 100여가지를 선보이는 생활백서-요리편. 매일먹는 음식을 좀 더 특별하게 업그레이드 해준다. 남은 음식을 활용하는 법을 힌트로 알려주는 건 기본. 생선 물 없게 굽기, 좋은 멸치 고르기, 소고기 국적 구별법, 돼지고기 누린내 없애는 법, 치즈 보관법 등 알고 있으면 도움될 만한 생활상식들도 골고루 전한다. 안드로이드폰용.

한우 사료 프로그램

농산부산물의 사료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일반적인 특성, 영양가치 및 사용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한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대두박과 옥수수 사료가치 및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농산부산물의 적절한 가격기준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우소식 이모저모

축산물 유통의 메카 '음성시대 개막'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개장...일일 소 470두, 돼지 1,800두 처리



농협중앙회는 지난 19일 음성축산물공판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음성축산물공판장은 대지 17,752평, 건물 9,091평으로 그 동안 시험 가동 7개월 여의 시설안정 기간을 거쳐 현재 일일 소 470두, 돼지 1,800여두를 도축 처리가 가능하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물은 정화 처리하여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수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했다.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가축혈은 혈분화하여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악취 저감설비 설치로 친환경 선진 도축·가공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소 출하예약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명절 성수기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흥수 출하 시 무작정 도축순서를 기다려야 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일제 점검 전국 우제류 대상...10월 17일~11월 18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시군 1개소, 읍면 3개소, 축산농가 20호(소 10, 돼지 10)가 대상이다. 2차 점검은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시군별 소 50두 이상 농가(1만 7000호), 돼지 전 농가(6000호)이다. 3차 점검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우제류가 점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은 6월 현재 19만 8000호로 한우우 17만 1000호, 젓소 6000호, 돼지 6000호, 염소 1만 5000호로 집계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이양호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 축산과장, 축산단체장 및 방역기관 등이 참석해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일제점검 등 축산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올해 겨울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이 100% 실시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축산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백신접종 시 애로사항과 개선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으며, 지난 5월 수립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추진 사항과 '2012년도 축산분야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애독자 코너



한우자조금은 소비자들이 한우에 관련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0000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한우전문음식점찾기와 한우요리 레시피 소개, 쇠고기 이력제, 할인 쿠폰 이벤트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14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9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임성수(경북 의성군), 정철균(경남 거창군), 김문겸(충남 태안군), 신홍식(경기 남양주시), 박용우(전남 해남군), 홍주희(충북 보은군)

인증점 소개

포항축협 영일촌 한우프라자

전화 : 054-261-8006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

메뉴 : 명품갈비살(100g) 16,000원



경상도 일원에서 영일촌 한우프라자를 벤치마킹하지 않고 오픈한 축협 직영점은 흔치 않을 정도로 이곳은 소문난 타의 모범 업소로 유명하다. 밀반찬은 15일마다 바뀌며 담백하고 구수한 갈비탕을 먹기 위해 인근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아침부터 손님들이 밀려든다. '손님이 졸도할 정도로 서비스하라, 그리고 특급호텔 못지않은 음식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이곳의 경영철칙이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8권 제22호 통권 제72호 발행일 2011년 10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케피아회관 3층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NCOM Tel: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모두 앞장섭시다.

- 오는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구제역 백신 접종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혈청검사 후 SP항체형성율이 80%미만 시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
- 50두 미만 농가는 백신접종시술비가 지원되오니 적극 참여합시다.
- 백신 접종 확인서는 필히 휴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농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바로 신고합시다.
- 구제역의심 신고전화 1588-9060



“구제역 방역,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